Entertainment p/18

힙합 아이돌' 갓 세븐 떴다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20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구자철 "72억짜리 이적"

# 불공정 판치는 억울사회 바꿔!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이젠 바꾸자

## 약자 외면하는 법·갑질·재벌총수의 횡령 등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행진 재계 앞장서야

"무엇이든 해결해 드립니다."

지난 2012년 개봉한 이재승 감독의 영화 '공정사회'의 한 장면이다. 어린 딸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인 '엄마'는 숱하게 경찰을 찾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심부름 센터'를 찾는다.

이 영화는 경찰로 해결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흥신소'를 통해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며 현 사회의 모습을 비판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반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불공정'이 '공정'을 덮는 행태가 지속돼왔다. 그리고 이는 2014년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공정하다는 인식보다 4.5배 정도 많게 나왔다. 분야별로 조세·경찰 및 사법·취업·방송·교육 순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았다.

특히 경제와 밀접한 계층 문제의 경우 '나는 중류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한 반면, '나는 하류층이다'라는 인식이 증가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또 10명 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봤고, 우리 사회에서 계층 상승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어려 외중에 불어닥친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그간 묻히거나 외면됐던 경제 분야의 불공정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남양 사태'로 시작된 경제 분야의 불공정성은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사태로 번지며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의 파문을 몰고 왔다.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에도 검찰이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로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기소하는 등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다른 재계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해 한화, SK, CJ, 효성 등 대기업 총수들은 줄줄이 법정 앞에 서야 했다. 해를 넘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몰려있다.

다음달 6일 서울고법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2월 말 께 열릴 예정이다.

재계는 국민들이 기업인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하소연하지만, 경제 분야에 불공정성을 키워온 기업인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올해 신년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창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은 그래서 음미해볼 만하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경제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이 사라지는 변화된 사회를 기대해본다. <관련기사 4면>

/장석일기자 ksi@metroseoul.co.kr

**가창오리의 AI 주범?**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19일 전남도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해남군 대동저수지 일대에 소독약품을 살포하고 있다. 사진 위는 AI 발생 원흉으로 의심받고 있는 가창오리 떼가 한가롭게 대동저수지 위를 날고 있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48시간 동안 전북 일대에 이동제한조치(standstill)를 발효하는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메트로 신문 독자 초대 '롯데월드 나이트파티' p/17

## 기업 설 상여금 늘려 평균 123만원

설을 목전에 두고 기업들의 상여금 수준이 높아지고 연휴 기간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길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4.4%가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2.3%보다 4.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대기업의 78.9%가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해 중소기업 75.4%보다 많은 대기업들이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75.6%가, 비제조업의 경우 68.1%가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설 상여금 지급액도 작년 118만1000원보다 4.3% 증가한 12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설 연휴 기간은 지난해보다 0.6일 늘어난 평균 4.1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일요일과 연결된 설 연휴로 인해 4일을 쉬는 기업 비율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응답한 기업의 90.3%가 4일 이상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연차휴가 등을 활용하면 실제 연휴 일수는 1~2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품 측은 경기는 호전되지 않았지만 연휴가 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기업 직원들이 예년보다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사 인사

▲ 세종사-경제산업부 기자 유주영

**OECD도 철도노조 석방 촉구** 국제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구속 수감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존 에반스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 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고창 이어 부안도 AI 감염

## 당국, 닭·오리 9만마리 살처분-이동제한 발효 등 확산방지 총력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19일 부안 농장의 오리도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온 부안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AI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최초 발생한 전북 고창 씨오리 농장의 AI는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진됐고, 17일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온 부안의 또 다른 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도 H5형 단백질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48시간 동안 이동제한조치(standstill)를 발효하는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거점 소독장소(61개소)와 이동통제 초소(91개소)를 170여 곳으로 확대하고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가금류와 가축류, 축산관계자와 차량을 통제했다. 도내 축산 등록 차량 4502대에도 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이동제한조치 명령을 내렸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거점 소독 20개소와 고창·부안 등 살처분 지역에서 교통 통제 등 경력 239명을 배치했다. 군 병력도 투입된 상태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닭·오리는 9만여 마리로 앞으로 3만여 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할 예정이다.

전북과 인접해 있는 충남 역시 AI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유지하고, 서천·부여·논산·금산지역 12곳에 설치한 통제초소를 14곳으로 늘리고 거점 소독장소 6곳을 각각 설치했다. 아직까지 충남도 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한 의심축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완주 전북지사는 담화를 통해 "고창과 부안지역 축산 농가에서 3년여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이 있겠지만 피해 확산 방지와 AI의 빠른 종식을 위해 이동중지 명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현준 기자 rcjk.metro@metroseoul.co.kr

## 서울 변호사 1만명 첫 돌파

### 제주도엔 52명만 활동

서울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의 개업 변호사는 1만474명으로 2012년 말 9124명에서 15% 가까이 늘었다. 로스쿨 1기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000명이 넘는 변호인이 탄생하면서 전체 변호사 수가 급증했다. 특히 새내기 변호인이 지방 개업을 꺼려 서울 변호사 증가가 두드러졌다.

2000년 2663명이었던 서울 개업 변호사는 2006년 5219명으로 두 배가 됐고 지난해 1만 명을 훌쩍 넘어 또 두 배가 됐다. 반면 제주지역 개업 변호사는 2000년 25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고작 2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승훈기자

## 성김 주한 美대사 후임에 리퍼트 물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성김 주한 미국대사 후임으로 마크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 기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대사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19일 요미우리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리퍼트 기용 검토는 북한의 장성택 숙청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지자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리퍼트는 오바마 대통령,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직접 통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보좌관,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방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그는 또한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관여해온 지일파 인사다. /조선미기자

**뉴스 & 뉴스**

### 입맛 까다로운 공관장 잦은 요리사 교체 금지

● 외교부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한다.

공관장 임기 동안 4번째 요리사를 고용할 때 공관장이 부임 항공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공관장의 잦은 요리사 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요리사가 3개월 이내에 일을 그만둘 경우 항공료를 회수하던 조항은 삭제했다.

### '전작권 전환' 한·미 2차 회의 워싱턴서 열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협의하는 한미 공동 연합실무단 2차 회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에이미 시라이트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자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제설함 위치 앱 '눈치해지'

서울시가 거주지역 제설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눈치해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눈 치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서울 앱 공모전'에 참여한 시민 4명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시는 제설함 위치 확인뿐만 아니라 '눈 치우기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한다.

'어린만의 여명' 3주년 최신예 함정 공개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아덴만 여명작전 성공 3주년 기념 함정공개'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최신예 해군함정에 올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함정은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서애류성룡함(7600t급)과 구축함인 문무대왕함(4400t급) 등 2척이다. /해군작전사령부 제공

# '3파전' 볼 만할 지방선거 벌써 후끈

6·4 지방선거가 4개월 넘게 남았지만 일부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불출마를 공식화하고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 중인 '신당'의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로 격돌하며 이 같은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여야는 어떤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만드느냐가 지방선거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유불리를 따지기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공천 폐지에 부정적 견해를 굳히기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지켜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한 살 낮추고, 투표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도훈기자

### 강서구 '자율 내부통제' 운영

서울시 강서구는 19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누락 등 이상 여부를 공직자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중랑구 '설 쓰레기' 처리 준비

서울시 중랑구는 설 연휴 기간인 30일~다음달 2일 '설 연휴 쓰레기 처리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연휴 기간 중 수도권 매립지의 휴무로 인해 관내 쓰레기 처리시설 및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상황실 및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 강북구 '근현대 기념관' 공모

서울시 강북구가 19일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핵심인 '근현대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를 담당할 업체를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4일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도 대박난 산천어축제 100만 인파 돌파** 19일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이 얼음 위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낚시를 하고 있다. 강원도는 개막 3주째인 이날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법 안통하는 '대행공화국'

## 역할·구매·심부름 등 국내 100여곳 성행 적용 법규없어 피해 조심

# 지난달 6일 인터넷의 불법 광고를 통해 모은 분실 스마트폰을 되판 장모(2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 달간 40여 회에 걸쳐 충전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되팔았다. 장씨는 분실 스마트폰을 사들이기 위해 1주일에 50만원씩 지불하고 불법 광고 대행업체를 이용했다.

# 지난해 8월에는 삼성그룹 전 부회장의 숨겨진 딸을 사칭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이모(30대)씨 등 2명이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매전문가 역할을 한 공범 홍모씨는 이씨가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직원이었다.

최근 대행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기·성매매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제재할 기관·법조차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한 적 있었는데 경찰은 모르고 한 일인지 알고 한 일인지 정도만 물어봤고 발뺌하자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대행업체는 역할대행·구매대행·심부름대행 등 100여곳이다.

문제는 역할을 대신해주며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기·횡령 등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남편 대행·애인 대행은 성매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행업체는 적은 자금으로 누구나 쉽게 차릴 수 있고, 고객들은 전화 한 통만 하면 비밀과 신분을 보장받는다.

애인 대행의 경우 업체에 문의를 하면 보통 20만~30만원 정도에 대행인을 구해준다. 외모나 몸매, 조건에 따라 십 단위에서 백 단위까지 가격이 올라가기도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도우미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결혼식 대행에는 한 번에 1000명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축의금을 횡령하기 위한 사기 행각에 이들 하객 도우미들이 동원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구매 대행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송을 요청할 때 이들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상품 주문 이후 사이트를 폐쇄해버리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 박지민 차장은 "대행업체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 방법이 취약하다"며 이용을 자제를 당부했다. 또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할 경우 통신판매 신고를 한 업주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다혜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한의사 '물광필러' 시술 못한다

한의사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물광 필러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 제품 '톨러스타' 등 1회용 주사기로 여성의 코와 볼에 주입하는 면허 범위 외의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히알루론산은 3가지 물질의 화합물로 많은 양의 수분과 결합해 피부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필러 시술의 경우 서양 의학 원리에 따른 것이고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은준기자

**노숙인시설 찾은 염수정 추기경** 12일 서임된 염수정 추기경이 19일 오전 서울 가톨릭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마을'을 찾아 첫 외부 활동을 펼쳤다. 염 추기경이 미사 참석자들에게 성체를 입에 넣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 경민대 기관평가인증 획득

경민대학교가 19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으로부터 '2013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경민대는 이번 평가에서 대학의 사명과 발전 계획 등 9개 기준과 세부 기준 27개, 평가 요소 72개에 모두 만족해 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

## 한국장학재단 김기남 감사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이 19일 신임 상임감사로 김기남(5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감사는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한국체대 총무과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 백화점 교통유발금 43억 깎아준 서울시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물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600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백화점에 실제 부과된 발금은 43억원 이상 감면돼 33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나 감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홍민정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2009년 1월 20일 정오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성경에 손을 얹고 제44대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을 합쳐 건국 선조들의 약속을 재건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 뒤 백악관까지 행진을 벌이며 환영 인파들에 손을 흔들어 답했다.

# 과거엔 정치자금 요즘엔 후계자금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1 재계 비자금, 그들은 왜

## 권력 아래서 성장한 한국기업 특유의 상납 문화 최근 그룹 총수들 배임·횡령은 재벌권력의 교만

지난 한 해 재계는 그룹 총수들의 비자금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그리고 해를 넘겨 올해에도 이 문제는 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특정 기업,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와 함께 어떤 기업도 비자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을까. '비자금'은 과연 기업 입장에서 '필요악'인가.

**◆재계 비자금, 정치자금 용도 많아**

비자금이라는 용어는 1987년 4월 범양상선의 불법적인 외화유출 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발표에서 처음 등장했다. 무역이나 계약 등의 거래에서 관습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 커미션과 회계 처리를 조작해 발생한 부정한 돈의 경우, 세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히 관리된 자금을 통칭하는 말이다.

초창기 이런 비자금의 용도로는 주로 정치자금이 지목됐다. 실제 지난 1991년 수서지구 택지를 한보그룹에게 특별분양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드러난 수서비리사건, 1992년 현대상선사건 등은 비자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들어간 사례들이다.

업계에서는 현재도 비자금 조성의 목적이 '정치자금'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 후계구도 완성 등을 위한 자금 등 다양하게 쓰인다고 설명한다.

**◆차떼기부터 최고령 총수들까지**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파문을 불러온 것이 2002년 대선 당시 소위 '차떼기 사건'이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삼성, LG, 한화, SK,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선자금을 받았다. 이때 만원권 현금으로 사과 상자에 실어 자동차로 운반한 일로 '차떼기 사건'으로 불렸고, 이 사건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 한동안 잠잠하던 비자금 문제는 MB정부 말부터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동양, 한화, SK, LIG, CJ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그룹 총수들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

올 들어서도 그룹 총수들은 검찰 수사에 따른 구속과 재판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오는 2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대법원에서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받고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11월까지 회삿돈 497억원을 빼돌리고, 2005~2010년까지 그룹 임원의 성과급을 부풀려 비자금 139억원 상당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월 31일 법정 구속됐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LIG그룹 구자원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달 13일 구속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치자금 vs 총수 개인 용도**

이렇듯 재계 총수들이 '법의 칼날'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구조 역학상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과거 개발경제시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지나치게 정치에 얽매어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입장에서 정치권에 잘 보이기 위해 보험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비공식적인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의 움직임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 마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오너의 비자금이 과거처럼 정치자금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정권이 주장처럼 '방의 권력이 자본으로 넘어 간 상황'에서 지금은 비자금의 필요전이 독특한 재벌구조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과거처럼 정치권이 기업을 강제할 만한 힘이 크지 않다"며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인 재벌가의 후계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ksj@metroseoul.co.kr

**트러블메이커 아베의 만세**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llegible] 당 총회 행사 중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 당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 '아베 구조대' 2인 美서 호된 꾸지람

## 특사 야치·친동생 기시 '야스쿠니' 무마 하려다 비판 세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사태'를 해명하기 위해 미국에 외무성 부대신인 친동생과 특사를 파견했지만 훈계만 들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아베의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신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한 주변국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당부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같은 날 야치 국장과 면담을 했다. 두 사람도 라이스 보좌관과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을 것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의 경우 16일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만났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아베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일본 외무성 부대신도 미 국무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관련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대일 비판 여론은 오히려 악화 일로다. 의원들과 학계 지식인들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물론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했다.

아베 총리는 19일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0년, 50년 전 사상에 갇혀있어서는 안 된다.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누군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미기자

## 16세 英소년 남극점 최연소 등정

16세 영국 소년이 18일(현지시간) 사상 최연소의 나이로 남극점 트레킹에 성공했다. 영하 40~50도의 혹한과 시속 193㎞의 강풍을 이겨내며 이룬 쾌거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브리스톨에 사는 루이스 클라크(사진)가 지난달 2일 남극 해안을 출발, 1129㎞의 거리를 48일 만에 도달했다.

클라크는 식량을 실은 썰매를 끌면서 스키를 타고 하루 평균 8~9시간, 약 29㎞를 이동했다. 안내자 한 명이 클라크와 동반했다. 클라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며 "지난 100년간 300명만 성공한 남극점 트레킹을 해내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24일 영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한편 클라크는 지난 2010년 12세 나이로 동갑내기 5명을 이끌고 영국해협을 헤엄쳐 건너 최연소 릴레이팀 세계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조선미기자

## 中 시속 605㎞ 세계 최고속열차 운행 성공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 시험 운행에 성공했다.

19일 중국 경제지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철노장비 제조 전문기업 중국 난처는 최근 칭다오 차량 생산기지에서 자체 개발한 고속열차를 시속 605㎞로 운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기록은 프랑스 고속열차 테제베(TGV)가 2007년 4월 기록한 세계 최고 기록인 시속 574.8㎞보다 빠른 것이다.

시속 605㎞ 돌파 기록은 전 세계 주요 고속열차의 평균 운행 속도가 시속 300~320㎞인 점을 고려하면 2배 정도 빠른 것이다. /조선미기자

하나투어리스트
추천
겨울여행
1~2월 따뜻한 동남아
추천 01
방콕/파타야 4일/5일/6일
299,000부터 ▶1월~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추천 02
캄보디아 천년의 역사 4일/5일
449,000부터 ▶1월~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추천 03
대만(야류/온천/화련) 4일
749,000부터 ▶2월 3,10,25,27일
추천 04
푸껫 휴양지의 여왕 5일/6일
599,000부터 ▶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추천 05
세부 낭만의 섬 4일/5일/6일
549,000부터 ▶1월~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추천 06
보라카이 천상의 낙원 4일/5일
399,000부터 ▶1월~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추천 07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 5일
699,000부터 ▶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추천 08
발리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섬 5일
579,000부터 ▶1월~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1577-1212
1600-6963
www.hanatourist.com

##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1944.45 (▼12.84)
코스닥 518.10 (+0.27)
금리 2.90 (+0.01)
환율 1059.7 (▼3.70)

**뉴스 & 뉴스**

### 금감원 금융교육 일정 한눈에

금융감독원은 금융 교육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4년 금융감독원의 주요 금융 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일정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청소년 금융교실(1월), 금융 교육 시범학교 선정(4월), 청소년 금융 창작물 및 금융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4~7월) 등을, 하반기 금융 교육 강사 육성을 위해 교사 금융연수(7월), 제3기 대학생 금융 교육 봉사단 금융 교육(8월), 사회복지시설 상담사 금융연수(10월) 등을 실시한다. /서양원기자

### 설맞이 24시간 통관 대책반

관세청이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기업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설 명절 수준의 통관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설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 야간 연휴 기간을 포함해 다음달 6일까지 400명의 '24시간 통관 대책반'을 운영한다. /김선기기자

### 국산 현대-기아차 수입 독일차

2013년 국내에 신규 등록된 승용차를 분석한 결과 현대·기아차와 독일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국산차 단일 모델 상위 15개 모델 중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6개씩 차지했고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차는 각각 1개씩 차지했다. 수입차 인기 모델 리스트를 보면 지난해 폭스바겐의 상승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김성현기자

**로또복권** 제583회

| 1등 당첨번호 | | | | | | 2등보너스숫자 |
|---|---|---|---|---|---|---|
| 3 | 5 | 14 | 20 | 42 | 44 | 33 |

| 등위 | 당첨방법 | 당첨금(원) |
|---|---|---|
| 1등 | 6개 숫자 일치 | 1,594,554,547 |
| 2등 |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 53,361,664 |
| 3등 | 5개 숫자 일치 | 1,777,026 |
| 4등 | 4개 숫자 일치 | 50,000 |
| 5등 | 3개 숫자 일치 | 5,000 |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문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 | |
|---|---|
| 발행·인쇄인 | 남궁호 |
| 사장·편집인 | 김종희 |
| 편집국장 | 조인호 |
| 서울광고문의 | 02)721-9851 3 |
| 부산광고문의 | 051)250-2600 |
| 독자센터 | 02)721-9805 |

2005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번

# 시중은행 고객정보도 유출됐다

## 1700만명 피해 전망… 카드사 신상 항목 유출 사태 전 금융권 확산 조심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불똥이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롯데·NH농협 등 3개 카드사가 지난 주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 개개인이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예상보다 피해 범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15개 이상의 개인 신상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원들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성명, e메일, 휴대전화, 직장 전화, 주민번호, 자택 주소,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여부, 주거 상황, 이용실적 금액, 결제 계좌, 결제일, 연소득, 신용한도 금액, 신용등급 등의 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카드 결제 계좌와 관련된 은행의 정보까지 같이 유출돼 2차, 3차 사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KB국민과 NH농협의 경우 연결된 은행의 결제 계좌 내용도 대부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등급과 금융거래 내역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카드 이용자들의 모든 금융정보가 외부로 새나간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로 대략 17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카드 소유자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 카드 사용자들의 모든 금융 관련 개인정보가 낱낱이 파헤쳐져 대출업자들에게 팔려나간 것이다.

실제로 금융 당국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연예계·스포츠계 유명 인사들의 정보도 대부분 새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국과 금융사들은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는 등 향후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의 정보도 새어나간 것이 확실시되면서 심히 당황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를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며 "2차, 3차 외부 유출은 없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예상보다 사태가 심각해 큰 파장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상영기자 sy@metroseoul.co.kr

**스마트에어컨 예약 판매** 삼성전자가 회오리바람을 더 멀리 보내는 '아이스 단풍' 기술이 적용된 2014년형 스마트에어컨 Q9000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삼성전자 제공

### 사이버공간 해킹의심 매주 2000건

잇따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사이버 보안에 적신호가 켜졌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이달 들어 수백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으로 의심되는 활동은 북한 해킹을 포함해 매주 1000~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매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공격은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져 2차, 3차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가적 지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미래부로 이원화된 사이버 공격 관리 체계를 미래부로 일원화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미래부를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로 지정,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대책뿐 아니라 기업들의 보안 부문 투자 및 인식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감행된 뒤에야 주먹구구식 대책을 마련할 뿐이라는 것. 심지어 일부 화이트해커(보안전문가)들이 자사 소프트웨어를 해킹한 뒤 부실점을 찾아 이에 대한 패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 대응책 마련은 뒷전이고 해당 보안전문가를 해킹 혐의로 신고하는 등 문제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급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 "은퇴자, 주택 다운사이징 앞당겨야"

**금융가 사람들**

###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혜령 수석연구원

더 이상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고령화사회를 맞아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 그만큼 제2의 인생 설계가 중요해진 셈이다. 특히 자산의 70~80% 이상이 주택으로 이뤄진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주거 이동이 여유로운 노후로 가는 지름길이다.

김혜령(사진)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체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경우 집값 등락에 따라 은퇴자의 자산 가치가 좌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의 다운사이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 속 은퇴자들은 이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주택 다운사이징은 70세를 전후해 두드러진다"며 "은퇴 전 미리 주택 관리에 들어가는 노력, 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과 이에 따른 여유자금 활용 등 규모 유지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은퇴 후 예기치 못한 자금 지출에 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을 다운사이징하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경우다. 김 연구원은 "급매로라도 처분을 해야 하는지, 원하는 가격을 받을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물론 판단의 기준은 금융자산과 주택자산의 균형이고, 유동성 및 환금성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을 옮길 상황이 안 된다면 주택연금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평가된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주택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동시에 은퇴자의 재무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옥기자 ps0320@

# 금융한류 '성공 방정식' 세가지

1. 장기적인 노력·투자
2. 인적 네트워크 강화
3. 민간업체와 동반진출

"아시아 신흥국들과의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인프라와 위기 극복 경험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은 전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할 때부터 '금융 한류'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국내 은행의 총자산 증가율은 2010년 1.6%, 2011년 6.8%, 2012년 2.5%에 불과했다. 순이자마진(NIM)의 지속적인 감소로 국내 은행의 평균 성장률 또한 금융위기 이전 1.3%에서 2010년 이후 0.8%로 하락했다.

시장은 점차 좁아지고 저금리 기조와 내수 부진 등 여러 악재가 겹쳐 금융권의 입지는 더 확대될 여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 시장의 진출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3분기까지 11개 국내 은행들은 33개 국가에 148개 해외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동안 5개 해외 영업점이 폐쇄됐지만 11개 영업점이 신설돼 전년 말인 142개 대비 총 6개의 영업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7개, 베트남이 16개, 홍콩이 12개 등 순으로 아시아 지역이 6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의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부분 금융사들의 영업 범위가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이나 한국인들로 한정돼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취임할 때부터 '금융 한류'를 통해 금융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연합뉴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 및 국내 금융사 해외 지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전'이라는 비아냥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초국적화지수(TNI)는 3.8%에 불과해 여나 선진국 주요 은행들 수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내 은행의 해외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 수준으로 글로벌 은행의 해외자산 비중인 30~60%에 비하면 매우 낮다.

해외 점포의 수익성 기여도 역시 0.7%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를 위해 해외 점포 설립과 영업을 위한 인수·합병과 출자금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 개척 기반 및 인프라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은 여전하다. 외국 자본에 대한 정서적 반감과 언어가의 어려움 등 수많은 변수도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은행사 개인정보 유출, 동양그룹 사태 등은 국내 금융사들의 신뢰 하락이라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당장 수익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조급함보다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일례로 지난 1992년에 베트남에 진출한 신한은행의 경우 17년의 기다림 끝에 2009년 한국계 은행 중 유일하게 현지법인을 설립해 12만여 명의 고객을 확보한 바 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이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추진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사업 위주로 조직 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국내 규제 환경 개선 및 민간 금융공기업의 동반 진출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원·채신화기자
pjadi@metroseoul.co.kr

# “어머니형 리더십으로 KT 이끌어야”

## 긴급진단 - 이석채 체제' 공룡이 된 KT, 변해야 산다

### "삼성 DNA 조직에 그대로 이식 땐 되레 망치는 결과 초래" 우려 시선도

[글 싣는 순서]
① 위기의 KT, 어디로 가나
② 내부 혁신 이 우선이다
③ 여러 관행 괜찮나
4 ICT서 바라보는 황창규호

"KT 회장직이나 부회장직이 정부 부처의 장·차관보다 훨씬 매력적인 자리다."

지난 KT 최고경영자(CEO) 공모 때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모 인사의 평가다. 이처럼 정부 부처 장·차관직은 명예직에 가깝지만, KT CEO는 실질적인 것들이 뒤따른다.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소 20억여 원 이상의 연봉에 3만여 명의 직원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향후 또 다른 행보를 모색할 수 있는 통로 역할까지, 한마디로 명예와 실리를 모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이석채 전 회장의 경우 다양한 계열사를 분리시켜 소위 그룹으로서의 면모까지 갖추게 돼 KT의 위상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인사들은 KT 회장직에 고개를 젓는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봐야 할지 '답이 없다'는 게 이유다. KT 부사장 출신인 윤종록 미래부 차관의 경우에도 KT 회장직 대신 지금의 자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KT 사장 출신의 다른 인사도 "현재 KT는 너무 본영돼 있어 이를 추스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 CEO는 이 전 회장이 벌여놓은 많은 일들을 문제 없이 정리하는 것에만 3년이라는 임기를 다 채워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만큼 KT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사람'이다. 한간에 KT를 평할 때 똑똑한 인재들이 신입으로 들어오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바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ICT 업계의 한 원로는 "KT가 ICT 분야의 창조경제를 실현할 만큼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새 CEO는 모든 직원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어머니형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임 CEO처럼 회의 석상에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나 '나만 따르라' 식의 '독불장군형 리더십'은 오히려 KT를 더 망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런 지점에서 황창규 내정자의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ICT 업계는 궁금해한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사례처럼 삼성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진 장관의 경우에도 삼성의 문화를 정통부에 접목시키려다 실패해 역대 최악의 정통부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전직 정통부 차관 출신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과 통신 서비스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제조업처럼 '100'을 투입한다고 바로 '100' 또는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제조업계의 마인드를 KT에 그대로 이식시키려 할 경우 이는 오히려 KT를 더욱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태균기자 ksgt@metroseoul.co.kr

## 글로벌 인터넷 기업 시총 미국·중국 1~5위 싹쓸이

글로벌 인터넷 관련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독세하고 있다. 시가총액(이하 시총) 기준으로 이들 국가가 1~5위를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거래소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세계 인터넷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구글의 시총은 3863억 달러로 확인됐고,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각각 1812억 달러, 1453억 달러를 기록해 2~3위에 올랐다.

중국 인터넷 기업 최초로 시총 1000억 달러를 돌파한 텐센트는 1258억 달러를 기록하며 15개 기업 중 4위에 올랐다. 이어 중국 바이두가 605억 달러로 5위를 지자했다.

미국 야후는 406억 달러, 트위터와 링크드인의 시총이 각각 343억 달러, 275억 달러로 집계돼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에서는 엔저 기조 속에 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야후재팬과 인터넷 쇼핑 사이트 라쿠텐의 시총이 각각 341억 달러, 226억 달러까지 올라 트위터, 링크드인을 추격했다.

한국의 네이버 시총은 222억 달러로 11위를 마크했다. /박상훈기자

**11번가 오늘 하루 반값!**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가 큐레이션 서비스인 쇼킹딜 앱 출시를 기념해 20일 하루 동안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사이버먼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9일 SK플래닛 T타워에서 모델들이 이를 알리고 있다.

### 판다·F1 경주차량·노트르담 대성당의 종

## 배송 안되는 게 없다

해외 유학과 관련한 서류를 항공으로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로 익숙한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들이 독특한 삼품을 나르면서 이름을 더 널리 알리고 있다.

판다나 고릴라와 같은 희귀동물은 물론 고가의 억기, F1 경주차량,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 등 대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19일 특수 배송업계에 따르면 DHL 익스프레스는 최근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룹 '태양의 서커스'와 공식 물류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태양의 서커스는 전세계 6개 대륙, 150여 도시에서 글로벌 투어를 앞두고 있으며 연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단이다.

DHL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하는 태양의 서커스 야든식 공연장인 '빅 탑'엔 아레나와 서커스용품의 운송과 통관 서비스를 지원한다.

TNT가 5.5t에 달하는 노트르담 대성당 종을 옮기고 있다. /TNT 제공

TNT는 지난 16일 세계적인 기타 브랜드 깁슨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지점과 독점 운반 계약을 체결했다. 나무가 주재료인 기타는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하며 통기타 한 대 가격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앞서 TNT는 스페인에 6년간 임대됐다 고향인 중국으로 반환돼야 하는 판다를 운송해 눈길을 끌었다. TNT는 온도에 민감하고 성격이 예민한 판다의 특성을 고려해 온도 유지를 위한 첨단 IT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상훈기자 zero@

## ‘피파온라인3’ 모바일 버전 출시

온라인 PC게임이 모바일 버전으로 속속 출시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인기 축구 온라인게임 '피파온라인3'(사진)의 모바일 버전인 '피파온라인3 M'을 6월 브라질 월드컵 개막일에 출시할 계획이다. '피파온라인3 M'은 온라인 버전에서 서비스되는 전 세계 40개 국가 대표팀과 1만6000여 명의 선수 기능을 그대로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게임즈의 1인칭 슈팅(FPS) 게임 '스페셜포스 퍼스트미션'도 최근 정식 모바일 버전을 선보였다. PC보다 조작폭이 작은 스마트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액정을 손가락으로 긁는 방식으로 칼 휘두르는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려 했다.

이 밖에 엔게임은 '프린세스 메이커'의 카카오 게임 모바일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라이엇게임즈와 SK텔레콤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플레이 및 레슨 영상 서비스인 '1분'을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이 대세이기도 하며 온라인 PC게임의 모바일 버전 출시는 유선과 무선에서 동시에 이슈를 끄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소치 동계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 등 시차가 큰 대형 스포츠 행사로 인해 PC방 게임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이탈을 막으려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 금값 떨어지니 골드바 판매 '쑥쑥'

최근 금(金)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번 설을 맞아 금 관련 선물 상품이 백화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 백화점이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본 판매 기간 동안 골드바를 비롯해 금팩·금수십 등 금(金) 관련 상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았다.

골드바의 경우 1월 금 시세 하락으로 16일까지 전년 대비 142.2%나 판매가 늘었으며 설 선물세트 본 판매가 시작된 13일부터 4일간은 설 선물 수요가 겹치며 183% 더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2013년 골드바 평균 시세는 37.5g(10돈) 기준으로 236만원대였지만 2014년 1월 평균 시세는 194만원대로 약 15%가량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골드바 종류는 10g·37.5g·50g·100g·1kg 5종류가 있으며 이 가운데 부담이 적은 10g 상품이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 준보석 브랜드인 '골든듀'에서 출시한

한 고객이 롯데백화점에서 골드바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이 상품은 작년 롯데백화점 전 점에서 2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배의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힐링푸드 열풍의 영향으로 금이 함유된 프리미엄 선물세트의 판매도 늘었다. 금가래떡·금떡국떡·금쌀이 포함된 선물세트는 본점에서 2일 만에 200여 세트 이상이 판매돼 준비 물량을 보충해 판매 진행 중이다. 제주에서 생산한 금더덕과 여주 금쌀, 강화 금인삼으로 구성한 '골드 3종 세트'는 하루 300여 세트, 유기농 녹지 뿌리에 순금을 시비해 금을 함유케 한 '황금영지 세트' 같은 프리미엄 상품도 4일간 20세트 이상이 판매됐다. /장윤희기자

● 궁금증 유발 팝업스토어 오픈 ● 청마 저금통 증정 ● 소비자 체험단 운영

# 외식업계 '이색 마케팅'

새해 시작과 함께 외식업계에서 다양한 '이색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통사들의 특징은 단순한 할인 행사를 통한 프로모션에만 치중했던 이전의 방식에서 소비자에게 특별한 체험과 보상의 기회를 제공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메뉴 출시에 앞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메뉴를 선공개해 이슈화를 유도하는가 하면,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청마를 활용한 마케팅을 벌이기도 한다. 또 소비자 체험단 운영도 눈에 띈다.

버거킹에서 지난 1월 7일과 8일 양일간 운영한 '필리킹 팝업스토어'(사진)는 다음달 27일까지 한정 판매되는 새해 첫 신메뉴 '필리치즈'를 홍보하기 위해 강남 신촌 종로점 2개 매장의 매장명과 외부 인테리어를 '필리킹'으로 변경하고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해 스토어 운영 전부터 이슈화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한정판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도 한창이다. 스타벅스에서는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텀블러 모양에 말(馬) 이미지를 구현한 '청마(靑馬) 저금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텀블러 모양의 청마 저금통은 청마 해를 맞이 푸른 바탕에 목마와 금빛 문양을 넣어 국내에서 디자인된 제품으로 오는 27일까지 '에스프레소 샷 그린티 라떼' 혹은 '스타벅스 돌체 라떼'를 포함해 1만 5000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의 경우 메뉴의 콘셉트 및 맛을 평가해줄 소비자 패널단을 모집하고 2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4개월간 운영한다. 소비자 패널단은 해당 제품 메뉴와 서비스 점검은 물론 새롭게 출시되는 신메뉴를 미리 경험하는 등 소비자 대표로서 다양한 평가를 하게 된다.

/장윤희기자 yoonsss@metroseoul.co.kr

## 대림역 도보 5분 '포스큐' 오피스텔

서울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역세권에 '포스큐(Pos-Q)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289실, 도시형생활주택 175실 등 총 464실로 구성됐다.

도보 5분 거리의 대림역뿐 아니라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도심 지역 어디든 출퇴근이 용이하다. 특히 여의도를 비롯한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이 가깝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도로를 통한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좋다.

인근으로 구로의 중심인 거리공원과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도림천이 있어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롯데백화점·테크노마트·타임스퀘어·디큐브시티·이마트·구로구청·고대구로병원 등의 편의시설도 잘 갖췄다.

모델하우스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2월 초에 오픈할 예정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40%로 무이자가 가능하다. 문의 (02)863-3838

/박선옥기자

"뽀로로 한복 입고 설 맞이하세요" 19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아이들이 뽀로로 아동 한복을 입어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설을 맞아 뽀로로 캐릭터 아동 한복을 한 벌에 6만50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 화정역 황금상권 '리빙텔'

### 전용률 높고 풀옵션 제공 입주 전 분양 마감 기대

국내 1~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수익형 부동산 '힐링하우스'가 공급돼 눈길을 끈다.

힐링하우스는 서울지하철 3호선 화정역 도보 1분 거리의 로데오거리 중심에 위치한 싱글하우스다.

로데오거리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CGV, 덕양구청, 정부민원종합청사, 명지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대거 위치해 있다. 또 화정터미널, 광역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이라 서울역, 여의도, 영등포, 신촌 등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치는 상권인 데다 교통도

좋아 공실 걱정이 없고, 임대 사업을 하기에 적당해 2월 입주를 앞두고 조기 분양 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고시텔과 차별화한 설계로 전용률을 높였으며 LCD TV, 에어컨, 핫플레이트, 침대, 전자레인지, 빌트인 컴퓨터 책상,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 제공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법무사가 에스크로우 제도로 자금 관리를 해줘 안정성을 더했다.

문의 1588-5473

# 설 선물도 해외 '직구'

## 온라인몰 판매 전년보다 63% 늘어나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 구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온라인 장터 G마켓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온라인몰의 '글로벌쇼핑' 코너를 통한 해외 상품 구매가 전년 설 동기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이 기간 해외 브랜드 보디용품 선물세트가 전년 설보다 15%, 샴푸·린스는 112%나 증가했다. 국내 구매보다 배송 기간이 긴 단점이 있지만 백화점 등에서 사야 했던 해외 인기 제품을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이 구매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해외 직접 잡화 구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해외 브랜드 신발 구매는 299% 급증했으며 여성 의류 250%, 화장품 22%, 가방과 지갑은 40% 상승했다.

대표 명절 선물인 양말·스타킹류는 240%, 설빔을 위한 유아동 의류는 66%가 각각 늘어났다. 1월 말 판매 소식에 장갑 구매도 63%로 폭증했다.

또 가공식품도 같은 기간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초콜릿의 구입량이 826% 급증했으며 과자·스낵류는 222% 늘어나면서 가공식품 판매 증가세를 견인했다.

G마켓 해외쇼핑팀 정소미 팀장은 "지난해 말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이 화제가 되면서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런 경향이 설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설 선물로 활용하기 좋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의류·잡화·식품까지 전년 설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AIG손해보험 60주년
AIG
나이 많다고
가입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75세까지 가입 가능!
최대 90세까지 연장 가능!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Active 보험금)
치매진단비 II(중증치매) 3천만원 지급
암 진단비 II 2천만원
상해사망 1천만원
간병도우미 1회 3만원(연 5회)
명품부모님보험
1644-9896

# 레이서 존 쿠퍼 취향 입은 '튜닝의 명작'

임의택의 차차차

■ 미니 쿠퍼 JCW

일반적으로 작은 차들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니 쿠퍼 JCW는 운전의 즐거움(Fun to Drive)을 가장 큰 매력으로 내세운다. JCW(John Cooper Works 존 쿠퍼 웍스)는 기존 미니 차량에 몬테카를로 랠리의 우승을 이끈 레이싱 선구자 '존 쿠퍼(John Cooper)'의 튜닝 프로그램이 추가돼 더욱 강력한 성능을 내는 모델이다. 이 차의 매력은 기남해 6월 인제스피디움을 질주하며 느껴본 바 있는데, 이번에는 공도(公道)에서 체험할 기회가 주어졌다.

JCW 모델의 외관은 도어 실과 프런트 그릴에 JCW 배지와 보닛 스트라이프로 장식했다.

실내는 JCW 모델의 아이덴티티인 검정색과 붉은색의 컬러로 실내를 꾸몄고 시프트 패들이 포함된 JCW 전용 레드 스티치 3-스포크 다기능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도 장착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한 옵션으로 JCW 로고가 표시된 스포츠 브레이크, JCW 전용 17인치 크로스 스포크 챌린지 경량 휠과 머플러 앞 범퍼와 사이드 스커트, 리어 범퍼에 JCW 에어로 키트를 장착함으로써 주행 안전성 강화를 꾀했다.

▲한 ● 평가: 운전 재미는 최고다. 옵션에 따라 다양한 차 꾸미기가 가능한 점도 매력

▲평점 ★★★★(★ 5개 만점)

## 블랙&레드 인테리어 등 JCW 아이덴티티 뚜렷
## 엔진 사운드·하만카돈 오디오도 '운전의 즐거움'

미니 JCW에는 신형 터보차저 피스톤 냉기 시스템 등으로 업그레이드된 직렬 4기통 밸브트로닉 JCW 트윈스크롤 터보차저 엔진이 장착돼 최고 출력 211마력을 낸다. 기본형이 122마력을 내는 데 비해 89마력이나 높은 출력이다.

가속을 하면 JCW만의 독특한 엔진 사운드가 울려 퍼지면서 질주 본능을 자극한다. 최대 토크는 26.5kg·m이고, 오버 부스트 때는 28.6kg·m까지 올라간다. 특히 기본형의 경우 425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데 비해 JCW는 1750~5500rpm 사이에서 최대 토크가 나온다. 덕분에 강력한 출력을 넓은 회전 수에서 활용할 수 있다. 0→100km/h 가속 시간은 6.7초다.

공도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차고 속도뿐 아니라 주행 안전성이 매우 중요함을 느끼게 된다. 한 방향으로 달리는 트랙과 달리, 공도에서는 자칫하면 맞은편 차선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니 쿠퍼 JCW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핸들링을 보여준다. 스티어링 반응이 매우 예민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착착 돌아나가는 맛이 일품이다.

미니 쿠퍼 JCW의 매력은 단순히 달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세계적인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인 하만카돈(Harman Kardon) 시스템이 달리는 내내 귀를 즐겁게 해준다.

미니 쿠퍼 JCW의 가격은 4500만원으로 184마력의 쿠퍼 S보다는 550만원 비싸다. 값 대비 가치로 보면 쿠퍼 S가 더 나아 보이지만 JCW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독특한 맛이 있다. 이 점이 이 차에 빠져들게 하는 가장 큰 매력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 한불모터스 "올해 4500대 판매 목표"

푸조와 시트로엥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가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모델들의 출시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2014년에 4500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17일 공개했다.

푸조는 올해 국내시장에 어반 크로스오버 2008과 뉴 308을 선보인다. 2008은 유럽 시장 출시 이후 이탈리아 자동차기자연합 선정 '2014 오토 유로파상', 폴란드의 오토 세아트기 뽑은 '올해의 골든 스티어링 휠' 등을 수상하며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뉴 308 역시 여러 전문 매체의 호평이 이어지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트로엥은 올해 국내 상륙 2년을 맞는다. 올해에는 그랜드 C4 피카소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뉴 C4 피카소 모델은 지난 6월 출시 이후 유럽에서 패밀리카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는 오는 3월 국내에 출시 계획이다.

한편 한불모터스는 주요 도시에 서비스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고객들이 더욱 빠르고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원활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한불모터스 송승철 대표이사는 "2014년은 푸조·시트로엥이 한국 시장에서 양적·질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의택기자

<베스트셀링 수입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 제조사 | 차종 | 2009년식 | 2010년식 | 2011년식 | 2012년식 | 2013년식 |
|---|---|---|---|---|---|---|
| 벤츠 | 뉴E클래스 | 3,450 | 3,060 | 4,220 | 4,750 | 5,180 |
| | 뉴S클래스 | 5,830 | 6,850 | 8,170 | 8,800 | |
| BMW | 뉴5시리즈 | | 3,810 | 4,050 | 4,600 | 5,090 |
| | 뉴3시리즈 | 2,650 | 2,930 | 2,890 | 3,960 | - |
| 아우디 | 뉴A6 | | | 4,120 | 4,750 | 5,330 |
| | 뉴A4 | 2,520 | 2,660 | 3,100 | 3,250 | 3,620 |
| 렉서스 | ES | 2,430 | 2,710 | 3,060 | 3,450 | - |
| 폭스바겐 | 뉴 파사트 | 2,140 | 2,440 | 2,590 | 3,480 | 3,330 |
| 미니 | 쿠퍼 | 1,900 | 2,090 | 2,190 | 2,400 | 2,850 |
| 도요타 | 캠리 | - | 1,860 | 1,950 | 2,630 | 2,870 |

자료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 아반떼 떨고 있니? 소형 수입차의 습격

2014년 수입차 시장에 '소형차'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가장 먼저 출시된 아우디 A3는 소형차와 준중형차 사이에 자리하는 차다. A3의 차체 길이는 4456mm로 현대 아반떼(4550mm)보다 작고, 휠베이스(앞뒤 차축 간 거리)는 2637mm로 역시 아반떼보다 짧다. 엔진 배기량은 2.0ℓ이고 최고 출력은 150마력으로 차체 크기에 비해 넉넉한 힘을 갖췄다.

A3가 선보이고 일주일 뒤에 데뷔한 CLA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종 중 가장 작은 세단이다. 엔진은 1.8ℓ 136마력 디젤 터보와 2.0ℓ 360마력 가솔린 터보 등 2가지가 장착된다.

이들 차종은 가격 역시 기존 모델들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아우디 A3는 3750만~4090만원이고 메르세데스 벤츠 CLA는 4630만~6970만원이다.

위부터 아우디 A3, 메르세데스 벤츠 CLA, BMW 2시리즈.

오는 3월쯤 등장하는 BMW 뉴 2시리즈 쿠페는 1시리즈 쿠페보다 휠베이스가 30mm 길어졌으며, 전장은 72mm, 전폭은 32mm 늘어났다. 실내 공간도 늘어났고 트렁크 용량은 390ℓ로 1시리즈 쿠페보다 20ℓ가 늘어났다. 국내에 들어올 모델은 BMW 220d와 220i로 모두 최고 출력 184마력의 힘을 발휘한다.

이들 차종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예비 고객이 국산차 고객층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3000만~4000만원의 가격대에 포진돼 있어 국산차를 구매하려던 고객이 수입차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수입차 업계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작은 고급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입 모델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임의택기자

## 폭스바겐 '스웨덴 아이스 어드벤처' 참가 접수

폭스바겐코리아가 멤버십 매거진 '다스 아우토' 독자를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스웨덴 라플란드에서 퍼포먼스 클래그십 모델 골프 R의 성능을 체험할 '스웨덴 아이스 어드벤처 2014' 참가자를 25일까지 모집한다.

스웨덴 라플란드 지역은 겨울철 평균기온이 영하 30도에 달하는 곳으로 설경과 얼음 호수로 유명한 곳이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진의 스포츠 드라이빙 테크닉 강의와 함께 얼음 호수 위에 마련된 두 개의 서킷(총 길이가 6km에 이르는 핸들링 코스)을 체험할 수 있다.

당첨된 2명에게는 스웨덴 왕복 항공권과 함께 호텔 숙박 및 식사권, 골프 R 드라이버 트레이닝 및 시승 등 1인당 400만원(약 2635유로) 상당의 참가비를 지원한다.

## 국민통합운동에 불을 댕기자

정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새해 들어 새삼스럽게 국민통합의 절박성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로마 교황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서임된 염수정 추기경은 첫 인사로 "국민 모두를 통합으로 끌어안는 치유의 전도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염 추기경은 특히 "흩어진 양들을 모아 화해와 공존을 추구하고 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에서는 자승 총무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혜와 자비에서 기원하는 원효(元曉)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논쟁을 화합으로 바꿔야 한다는 원효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에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대표들의 신년 회견 내용 가운데 국민통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고 국민통합의 차원 높은 공화(共和)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편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 대타협'도 제안한 바 있다.

여야 대표들이 국민통합을 선창하고 있는 가운데 영호남 출신 여야 의원들이 지난 15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화합을 다짐했다. 이들은 오는 3월에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은 이벤트성이 강하지만 영호남 화합의 좋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종교계와 정치권이 국민통합에 같은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국민통합의 절박성이 수없이 제기됐으나 갈등이 해소된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는 중이다. 특히 정치권이 적대적 관계로 발전되면서 국민 분열을 조장해왔다. 지금 새 정부 들어 국민통합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존재감마저 의문스럽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당장의 민생 문제이지만 쪼개질 대로 쪼개진 분열과 들끓는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보다 급하다. 특히 북한의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해 무엇보다 남남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종교계와 정치권이 앞장서고 교육·문화·사회·노사를 포함한 경제계 등 각계각층이 동참해 국민통합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포토프리즘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기 힘든 서울**

서울지역의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137㎍/㎥로 (…) 수준을 기록한 17일 (…)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광장을 걷고 있다. /손진영 기자

## 윈도XP는 포니가 부럽다

뉴스룸에서
박성훈 <경제산업부 차장>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XP의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내년 7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MS는 오는 4월 8일 모든 지원을 종료할 방침이었으나 보안 이슈가 떠오르면서 15개월가량 유예된 셈이다.

윈도XP의 다른 지원은 모두 예정일에 종료된다고 하지만 보안 지원 일정을 늘린 것은 박수받을 만하다.

2001년 시장에 나온 윈도XP는 역대 윈도 시리즈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 특히 국내에서는 한때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한국은 윈도XP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게다가 금융권에서 인터넷뱅킹 시 윈도의 웹 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동작하는 액티브X를 주로 채용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윈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온라인게임을 하는 유저들도 마찬가지다. 윈도나 IE 기반이 아닌 또 다른 운영체제(OS)나 웹 브라우저에서는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윈도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믿고 쓸 수밖에 없는 대체불가 제품'이었다.

그런데 MS는 지난해 윈도XP 지원 종료 방침을 통보했다. 윈도7이나 8과 같은 상위 OS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보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10만~30만원대인 업그레이드 비용 아끼려다 '신상' 털리고 해킹당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IT 제품 특성상 '신상'일수록 보안이나 성능 면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미 판매된 물건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자세를 넘어 '새것을 빨리 사라'고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상도에 썩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다.

현대차 계열사인 파텍스는 주로 단종 차량의 부품을 만든다. 1975년 생산된 포니 가운데 여전히 700대가량이 국내 도로를 주행하는 이유다.

파텍스의 목표 수익률은 '0'이다. 포니의 헤드 문짝 하나를 교체하면 100만원 이상이 들지만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 적자를 보더라도 헐값에 넘긴다.

4000만 대로 추정되는 국내 PC 보급 대수를 감안하면 800만 대가 상위 OS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MS판 파텍스를 기대해보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까.

## 인간의 조건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첸과 함께 처어나간다. 가방에 감추어둔 폭탄을 하나 꺼내 던진다. 응당 그래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생활에서는 뜻 있는 일이라곤 오직 그것뿐이다. 이제 서른일곱 살. 아마 앞으로 30년은 더 살겠지. 산다니, 어떻게 산단 말인가? 가게에 꽂인 이 레코드를 팔아서? 그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루 위쉬안과 비참한 생활을 같이 나누면서?"

에멜리크는 장제스를 암살할 테러를 준비하다 몸을 숨기러 온 동지 첸을 집에 들이지 않는다. 어느 사내에게 팔렸다가 버려진 중국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그다. 바로 그 아내와 자기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에멜리크는 이내 후회의 급류에 휩싸인다.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1927년 3월 상하이 폭동이 일어나고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의 야만적인 진압이 광풍처럼 소용돌이친다. 그 와중에 테러리스트, 지식인, 상인, 관료,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서로 뒤엉킨 채 운명의 계곡으로 빠져든다. 이 무대에는 중국인만이 아니라 벨기에인, 러시아인, 프랑스인, 독일인, 그리고 프랑스 남자와 일본 여자의 혼혈아가 각자의 고뇌를 끌어안고 중국 혁명의 이름 없는 주인공들이 된다.

앙드레 말로를 세계적인 작가로 알리게 된 이 소설은 그가 겨우 서른 살이었을 때 쓴 작품이라는 것에 우선 놀라게 되고, 당시 상하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격변의 역사를 이토록 정밀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놓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전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구했을까 하는 질문이다.

폭탄을 던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세상은 그 자체로 비극이다. 이미 폭탄이 터졌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면 더욱 곤란하다. 희생자들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조건'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인물들은 모두 아프게 소멸하고 만다. 인간이 연기(煙氣)가 되는 슬픔이다.

절망이 출구를 완강하게 가로막고 안개가 거리를 점령군처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빛이 관통하는 지점을 만들어내는 일은, 그런데 언제나 폭탄을 요구한다. 인간이 겪는 고통에 귀가 멀고 눈이 어두운 마음이 [illegible] 폭발물의 진정한 목표다. 존엄한 삶의 조건은 그렇게 태어난다. 이건 결코 [illegible] 아니다.

## '착한 금융' 콤플렉스

기자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착한 금융'이란 말이 금융권에 등장했다. 기부 등 사회공헌과 결합한 금융 상품들이 대거 출시되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금융이란 업종에 '착하다'라는 윤리적 기준을 들이댄 이 단어를 접할 때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부터 떠오른다.

금융권은 수익 고갈에 시달리면서도 개별 금융사의 경영에까지 개입하는 정부와 금융 당국의 지나친 규제에 새 분야 개척은커녕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수료, 금리 등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국내 금융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한국형 대형투자은행(IB),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도 거북이 걸음이다.

한편으로 국내 헤지펀드 운용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롱숏전략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전략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흉내만 내는 셈이다.

과거 동아시아로 치면 한국 금융은 칭기스칸을 탐내는 진시황 정도로 묘사할 수 있다. 외환위기 등 외국 투기세력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진시황처럼 만리장성을 쌓아올리고서는 드넓은 초원을 달리며 정착민들을 점령하고 세력은 확장해 수익을 올리는 몽골 유목 민족의 기세도 갖고 싶어하는 것이다.

'착하고 수익도 높은'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금융 선진화를 위해 금융에 대한 혼돈된 시각부터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내피 떼면 감쪽같이 '봄 재킷'

## 가격 부담되는 다운재킷 실속 쇼핑 요령

겨울철 필수품인 다운재킷은 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구입하는 게 좋다. 겨울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요즘, 고가의 다운재킷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위해 실속 있는 쇼핑 팁을 제안한다.

◆할인전을 노려라

최근 아웃도어 업계에서는 신년맞이 할인 행사가 한창이다. 이런 할인전을 이용하면 기능성과 스타일은 물론 가격까지 '착한' 다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노스케이프도 갑오년 다운 특가전을 열고 남성용 트레킹 중량 다운과 시파리형 헤비다운을 14만9000원에, 여성용 서링 퀼팅 다운과 빅 후드 중량 다운을 12만9000원에 선보인다.

특히 여성용 서링 퀼팅 다운은 '비지원 다운'으로 유명해진 제품이다. 블랙야크는 다음달 2일까지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벌인다. 2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짜리 상품권을, 30만원 이상이면 2만원, 5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을 각각 증정한다.

◆기본 아이템 하나로 돌려 입어라

비넌 미시웨지는 만파에 이제 이너 다운은 기본 아이템이 됐다. 심플한 컬러와 디자인의 이너 다운은 환절기에는 아우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유니클로 '울트라라이트 다운'의 경우 겨울에는 점퍼 안에, 날씨가 풀리는 봄·가을에는 재킷으로 입을 수 있어 실용적이다. 특히 웃깃의 높이를 낮게 디자인해 어떤 옷과도 부담 없이 매치할 수 있다.

◆탈부착 가능한+변신 아이템을 활용하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디자인은 한 벌로도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아이더 '아벨' 재킷은 다텐더 에어 소재를 적용한 바람막이 재킷과 다운 재킷이 세트로 구성된 디터치블 재킷이다. 추위 정도에 따라 내피와 외피를 결합 또는 분리해 재킷 하나로 세 가지 계절을 연출할 수 있다.

/여지원기자 jyy@metroseoul.co.kr

# 댓글달면 주방가전 쏟아진다

## 쿠쿠·리홈 등 경품행사

주방가전 업계가 새해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홈페이지에서 댓글만 달아도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쿠쿠전자는 31일까지 '축하 댓글 이벤트'를 벌인다. 쿠쿠전자가 지난해 수상·인증받은 내용을 보고 홈페이지에 100자 이내로 축하 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밥솥, 에어워셔, 믹서기 등을 증정한다.

최근 제빵기를 선보인 리홈쿠첸은 26일까지 브랜드 블로그에 '제빵기가 있다면 가장 만들어보고 싶은 빵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리홈쿠첸 제빵기와 영화관람권을 선물로 준다.

쿠잔아트는 이달 말까지 전 제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하고, 그릴&그리들러 구매자에게는 '그리들러 와플 플레이트'를 증정한다.

/서차경기자

뉴스&뉴스

## CJ제일제당 선물세트 사면 영화티켓 드려요

● CJ제일제당이 설을 맞아 31일까지 CJ제일제당 선물세트 구매객을 대상으로 주요 할인점 450개 매장에서 영화 '수상한 그녀' 관람권 1+1 쿠폰 증정 이벤트를 벌인다.

영화 쿠폰은 다음달 5일부터 14일까지 오후 5시 이전 일반상영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쿠폰 제시 시 동반 1인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웅진식품 설 선물세트

● 웅진식품은 발효 홍삼 '장쾌삼'과 노종 주스 '자연은' 등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 27종을 출시했다. 또 인삼 열매만을 추출해서 만든 '장쾌삼 인삼열매 실(實)' '발효홍삼 장쾌삼 원(元)'과 '장쾌삼 산삼배양근' 등도 함께 선보였다.

웹쇼핑에서는 발효 홍삼 선물세트를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을 다음달 28일까지 벌인다.

# 산적엔 어베리코, 떡갈비엔 셀레스테

## 설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 신동와인서 세트로 출시해

수입 와인 공급 전문기업 신동와인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설 명절 음식과 잘 어울리는 와인 세트를 공개했다.

세트는 어베리코와 셀레스테로 구성돼 있으며, 두 와인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와이너리 토레스가 스페인 토착 품종인 템프라니요로 만들었다. 각각 다른 지역인 리오하와 리베라델두에로에서 생산된 것이다.

어베리코는 블랙베리 등의 과일 향이 나는 산뜻한 느낌의 와인이며 셀레스테는 복합적인 향을 느낄 수 있는 강렬한 와인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은 전국 코스트코 매장에서 오는 30일까지 기존 가격에 50% 할인된 9만원에 판매된다.

신동와인이 설 명절음식과 어울리는 와인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신동와인 김승억 대리는 이날 행사에서 "어베리코는 부담 없이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와인으로, 부침과 같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부터 과일 등의 후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절 음식과 어울리는 특징이 있다"며 "떡갈비 등 육류에는 향이 강하고 맛에서 무게가 느껴지는 셀레스테를 함께 마시면 좋다"고 설명했다.

신동와인은 이번 설명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동와인 유태영 이사는 "와인 소비가 예전에는 지가있지만 점차 대중화되면서 고가보다는 개인 취향에 맞는 소규모 형태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며 "신동와인은 좋은 품질의 와인을 최적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효진기자

# 말띠 소비자 달콤·시원한 음료 더 마신다

## 탐앤탐스 구매내역 집계

외향적인 말띠 소비자들의 커피음료 구매 패턴에 대한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청마의 해를 맞아 멤버십 회원 150만 명과 말띠 멤버십 회원 11만 명의 구매내역을 집계한 결과, 말띠는 달콤하고 시원한 음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탐앤탐스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음료는 아메리카노였으며, 다음으로 카페라떼, 카페모카, 카라멜마키아또, 바닐라라떼, 핫초코, 플레인요거트스무디 등의 순이었다.

반면 말띠 고객은 다소 다른 선호 경향을 보였다.

말띠 소비자들은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에 이어 자바칩탐엔치노를 즐겨 찾았다. 특히 1990년생 말띠 회원은 뜨거운 아메리카노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3배 이상 더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시원하고 달콤한 음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이재훈 탐앤탐스 마케팅기획팀장은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말띠의 특징이 메뉴 선호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효진기자

# 티·소주·맥주·요거트···라벨이 예술이네

## 음료업계 소비자 감성자극 패키지 시선집중

음료 업계에 있어 겨울철은 비수기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음료 업체들이 앞다퉈 라벨을 이용해 예쁜 디자인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문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비수기 극복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라벨별로 다양한 스토리·콘셉트 담아**

최근 라벨 변화의 중심에는 스토리가 있다. 이야기가 없으면 마케팅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스토리와 콘셉트를 라벨에 담아내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재미와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이다.

티젠의 '허브티 시리즈'는 '열광과 청사랑', '유머' 같은 감성 스토리를 담은 프리미엄 블렌딩 티다. 사람 모양의 티백을 컵 입구에 걸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개별 제품마다 다양한 캐릭터를 인쇄해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는 재미를 주는 신개념 티백이다.

오비맥주의 카프리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 스티키몬스터랩과 함께 '카프리와 함께하는 도시 생활의 즐거움'을 주제로 각 병맥주 제품 라벨에 음악 공연·연주·파티·시티 라이프를 다르게 표현해 재미를 더한 '카프리 아트 콜라보레이션 한정판'을 지난해 8월 출시한 바 있다.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은 지난해 소비자들이 직접 라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페이스북에 접속해 라벨 디자인을 고른 후 원하는 문구를 적어넣으면 나만의 라벨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완성 후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종이로 출력하면 실제 소주 라벨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열렸다.

**◆유명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유명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최근 음료 라벨 디자인의 트렌드 중 하나다. 아티스트 특유의 감성이 제품에 색다른 성격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는 것.

글라소 비타민워터는 작년 7월 가수 지드래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지크리에이터(g-creator) 신제품을 출시했다.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 아이콘으로 불리는 지드래곤과의 협업으로 스타일리시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 회사는 이어 지난 11월에 지크리에이터(g-creator)에서 영감을 받은 신진 작가 바가트(VAGAT)가 직접 사인을 제작해 브랜드 관계자에게 전달해서 만들어진 '아트라벨' 시리즈를 출시하기도 했다.

한국야쿠르트도 지난해에 영국의 디자이너 산드라 이삭슨과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된 '세븐(7even)'을 출시해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정효길기자 pmfe@metroseoul.co.kr

# 동장군의 계절? 매운맛의 계절!

## 체온 올려주고 지방분해 매콤한 외식메뉴들 군침

추운 겨울, 꽁꽁 언 몸을 녹이려 매운 음식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 매운맛 성분은 뇌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의 한기를 쫓아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매운맛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매운 음식을 먹으며 추운 겨울을 달래고 있다.

스쿨푸드의 '철판궁닭'은 철판 위에 매콤달콤한 떡과 부드러운 닭고기가 어우러진 떡볶이에 콩나물이 얹어져 있어 독특한 느낌을 준다. 쫄깃쫄깃한 떡과 구수한 닭고기의 조합에 아삭한 콩나물이 함께 씹히면서 상큼하고 매콤달콤한 맛과 아삭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카페 리맨즈 콜렉션 키친에서 맛볼 수 있는 '카라카라 홍합누들'은 기운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에 입맛을 돋우고, 아늑한 가게 분위기도 동시에 만끽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붉은 빛깔의 매콤한 소스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철 홍합을 우동 면발과 함께 맛깔스럽게 볶은 메뉴다.

굽네치킨은 칼로리는 낮추고 매콤함은 더한 '핫재킨'으로 매운맛 마니아들을 공략하고 나섰다. 먹는 순간 체온을 올려주는 화끈한 매운맛에 부드럽고 쫄깃한 닭고기 본연의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따끈하고 매운 음식은 몸의 체온을 올려 지방 분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겨울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며 "추운 겨울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효길기자

**1940년대 '주트 슈트'의 부활** 17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 드 도쿄에서 열린 2014 가을·겨울 준지 파리 컬렉션에서 모델들이 정욱준 디자이너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컬렉션에는 194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주트 슈트'를 미래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30벌의 의상을 내놓았다. /삼성에버랜드 제공

# 페이스 오일 한방울로 촉촉한 겨울피부

## 건조함 달래는 오일 활용법

겨울 피부의 건조함을 달래줄 아이템으로 '페이스 오일'만 한 게 없다. 한방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페이스 오일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하얗게 일어난 각질까지 잠재운다"고 설명했다. 메마른 겨울, 촉촉한 피부를 위한 오일 활용법을 소개한다.

**◆세안 후 마지막 헹굼물에 오일 한 방울**

세안 후 유독 피부 속 땅김을 심하게 느낀다면 마지막 헹굼 물에 페이스 오일 2~3방울을 떨어뜨려 마무리한다. 페이스 오일의 보습막 효과가 건조함을 완화시켜준다.

**◆오일 마사지 후 스팀타월로 각질 제거**

각질이 쌓인 피부에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자주 각질을 제거하면 오히려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3회 오일을 물 용해 부드럽게 각질을 벗겨내야 한다. 세안 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적당량의 페이스 오일로 마사지한 다음 얼굴에 스팀타월을 얹고 5분 정도 두면 묵은 각질이 떨어져 나간다.

**◆수분크림에 한 방울 더하면 슬리핑 팩**

겨울철에는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피부에 튼튼한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잠들기 전 수분크림과 페이스 오일을 1대1 비율로 섞어 얼굴에 도톰하게 바르면 슬리핑 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롯데월드 25주년 기념 메트로신문 독자 초대 이벤트

### 어드벤처의 끝, 나이트 파티!

롯데월드 어드벤처 25주년 기념 스페셜 파티에 메트로 독자 연인들을 초대합니다.

롯데월드는 25일 오후 11시부터 26일 오전 4시까지 단 3000명만 참여할 수 있는 초특급 스페셜 나이트파티를 진행합니다.



이날은 록밴드 '노브레인'을 비롯해 '홀로그램필름' 파이의 공연과 마리오네트 특별 무대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또한 그동안 눈으로만 즐겼던 놀이기구도 줄 서지 않고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응모하면 25명(1인 2매)에게 파티 참여의 기회를 드립니다. 단 25일 파티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 20~22일 낮 12시까지

◆당첨 개별 통보

# 7인조 힙합그룹의 '화려한 유혹'

JYP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스타 갓세븐이 K-팝의 글로벌 확장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왼쪽부터 마크, Jr, 영재, 뱀뱀, 잭슨, JB, 유겸. 사진/박동희(이)(?)

## 오늘 데뷔앨범 '갓잇' 발표 … 차세대 주자 경쟁 갓세븐

### 개성만점 다국적 멤버 … 음악성 기본 고난도 안무 강점
### 엑소와 차별화된 모습 선뵐 것 … 올 목표 좋은 아티스트

가요계 빅 3 차세대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SM엔터테인먼트의 엑소가 이미 가요계를 장악한 가운데 다음달 데뷔를 앞둔 YG엔터테인먼트의 위너는 국내외에서 이미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다. 이들과 향후 K-팝의 미래를 이끌어갈 7인조 남성 그룹 갓세븐(GOT7)이 20일 데뷔 앨범 '갓 잇'을 발표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2PM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보이그룹으로 멤버 구성과 퍼포먼스에서 차별화를 보인다.

**◆ 7인 7색 다국적 멤버 화려한 면면**

갓세븐은 행운을 지닌 7명이 모였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2012년 데뷔한 듀오 JJ프로젝트의 멤버 JB(20)와 Jr(20)은 물론 세 명의 외국인 멤버 마크(21)·잭슨(20)·뱀뱀(17) 춤과 노래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한국인 멤버 유겸(17)·영재(18) 등 각자의 개성과 실력이 뚜렷하다.

JYP 월드투어 오디션으로 발탁된 외국인 멤버들은 한국에 온 지 3년째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인 멤버들보다 많은 말을 할 정도로 유창하게 한국어를 늘어놓는다.

태국인 멤버 뱀뱀은 비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가수의 꿈을 키웠다. 뱀뱀은 "어머니를 따라 비 선배님의 콘서트를 관람하고 열 살 때부터 춤과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는 비 선배님 때문에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 지금은 태국에서 12개의 한국 식당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잭슨은 홍콩 국가대표 펜싱 선수 출신이다. "1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늘 가수가 되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반대하던 아버지는 제가 펜싱으로 아시아 최고가 된다면 가수의 길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죠. 결국 2011년에 아시아청소년펜싱챔피언십에서 1위를 한 뒤 본격적으로 가수를 준비했어요."

대만계 미국인 마크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태어난 뒤 파라과이·브라질에서 성장하고 다시 로스엔젤레스로 돌아가 학창 시절을 보냈다. 국제적인 감각과 함께 예선 스타를 능가하는 꽃미남이 그의 특기다.

리드보컬인 영재는 JYP에 들어온 지 7개월 만에 데뷔할 정도로 보컬과 피아노 연주 실력이 뛰어나다.

**◆ JYP 최초 힙합 그룹 자부심**

갓세븐은 마샬 아츠 트리킹을 활용한 화려한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운다. 마샬 아츠 트리킹은 2PM이 선보인 애크러배틱과는 다른 발차기와 터닝 동작 등 무술적 요소와 비보잉 스타일을 접목한 안무가 특징이다. 쇼케이스와 음악 방송에서 선보인 안무는 기존 댄스그룹들에서 볼 수 있던 화려한 고난도 동작으로 구성돼 시선을 압도했다.

"화려한 퍼포먼스가 강점이긴 하지만 음악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JYP에서 나온 최초의 힙합 그룹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하루 4시간 이상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고 각자 곡 작업 연습까지 했죠."

엑소·위너와 함께 신트로이카 체제를 형성할 이들은 먼저 성공을 거둔 엑소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퍼포먼스로는 절대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대단하다고 인정하지만 부럽지는 않아요. 우리만의 길이 있으니까요."

이들은 "회사를 대표해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K-팝이 확장하는데 앞장서고 싶다. 신인상 수상과 같은 목표보다 좋은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 올해 목표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 갓세븐 프로필

**★JB(임재범)**
1994. 01. 06. 179cm 66kg A형
건국대 영화과 재학 중
JYP 공채오디션 5기 1위(2010)

**★Jr(박진영)**
1994. 09. 22. 178cm 13kg O형
-청기고 졸업
JYP 공채오디션 5기 1위(2010)

**★마크(MARK Yi-En Tuan)**
1993. 09. 04. 175cm 59kg A형
-아카디아 하이스쿨 졸업

**★잭슨(Jackson wang)**
1994. 03. 28. 174cm 63kg O형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스쿨 졸업

**★뱀뱀(Bhuwakul)**
1997. 05. 02. 170cm 52kg B형
태국 커버댄스 대회 1위(2007)
태국 LG 엔터테이너 대회 2위(2010)

**★김유겸**
1997. 11. 17. 181cm 64kg A형
-한림연예예술고 스트리트댄스과 재학 중
하우스 힙합대회 어드바이저 하우스부문 2위(2010)

**★최영재**
1996. 09. 17. 177cm 58kg B형
한국예술고 재학 중
-목포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보컬 우수상(2010)

PMC KIDS

ROi visual

# 단 1주일! 매진임박!
# 1월 26일 일요일
# 겨울공연이 종료됩니다.

2013.12.7~2014.1.26 서울교육문화회관대극장(양재동) 문의 02)738-8289

## 뮤지컬 로보카폴리를 만날 수 있는
## 단 1주일의 시간 절대 놓치지마세요!

<굿바이 폴리! 특별 이벤트>
평일공연 "부모님 1만원" 특가! (선착순 100명)
폴리와 함께하는 "무료포토타임" 까지!

*자세한 사항은 인터파크를 참조하세요 예매처 인터파크 R티켓 예스24 옥션

## 김재중 발라드 '화장을 지우다' 발매

JYJ의 김재중(사진)이 20일 솔로 리패키지 앨범 'WWW:화장을 지우다'를 발매한다.

타이틀곡 '예뻐'는 거미와 함께 부른 감성 팝발라드로, 김재중이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를 보니브로 만들었다. 또 다른 신곡 '화장'은 일본 유명 싱어송라이터 나카지마 미유키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다.

김재중이 아시아투어를 위해 고른 이 곡은 떠나간 사랑에 대한 아픔을 화장에 비유한 가사가 감미로운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발라드나, 새롭게 탄생한 '화장'은 원곡의 블루지한 느낌과 달리 피아노와 스트링만으로 곡을 구성해 심플하면서도 절제된 감정 표현이 특징이다.

솔로 앨범에서 강한 록을 선보여 왔던 김재중은 이번 앨범에 감미로운 발라드를 실어 색다른 매력을 전한다. 새 앨범 음원은 20일 정오 주요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다. /유순호기자

## '히든싱어2' 최종우승자는 누구

### 다음주 생방송…시청률 높은 무대 임성현·조현민 순

JTBC '히든싱어2'(사진) 왕중왕전 편 결승전이 다음주 생방송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최종 우승자가 누가 될지에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왕중왕전 편 2부가 방영된 결과, 결승전에 나갈 각 조 우승자는 A조 우승자인 임창정 모창 능력자 조현민, B조 우승자인 조성모 모창 능력자 임성현, C조 우승자인 휘성 모창 능력자 김진호로 가려졌다.

결승전 최종 우승자는 사전 인터넷 투표 20%, 대국민 문자 투표 80%로 선정돼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참가자가 승리하게 된다.

시청률 집계기관 TNmS에 따르면 전국 유료매체 가입 가구 기준으로 각 조 우승자 3명 중 가장 시청률이 높은 무대는 임성현(6.7%)으로 집계됐다. 그다음 조현민(6.4%), 김진호(5.6%) 순이었다.

한편 왕중왕전 편 2부의 시청률은 5.6%로 나타났다. 지난주 방영된 왕중왕전 편 1부(6.1%)와 2부를 합한 평균 시청률은 5.8%였다. /박정환기자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즈>

## 양현석 한국인 첫 IPP

### 소니 뮤직 영국대표 등 세계적 음악 비즈니스 명사와 어깨 나란히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사진) 대표 프로듀서가 25일자 빌보드 매거진에 실린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즈(International Power Players)'에 선정됐다.

IPP는 빌보드와 세계적인 국제 음악 박람회 미뎀이 협력해 세계 음악 시장을 움직이는 음악 비즈니스계의 리더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한국인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양 대표는 빅뱅과 2NE1월드투어를 함께한 세계적인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유럽 공연 담당 사장 존 레이드, 사코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사이먼 코웰, 소니 뮤직 영국 대표 닉 갯필드, 에이벡스 CEO 마츠우라 등 세계적인 음악 비즈니스 명사들과 어깨를 나란히했다.

빌보드는 양 대표를 "1992년 한국의 모던 팝이라는 장르를 구축한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K-팝스타였다"고 소개한 뒤 제작자로 변신 후 일궈낸 성과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또 싸이의 세계적인 성공, 12개국 80만 명을 동원한 빅뱅 월드투어와 57만 관객을 동원한 지드래곤 아시아 투어, 77만1000명을 동원한 빅뱅 일본 6대 돔 투어 등을 언급해 YG와 YG 소속 가수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전했다.

양 대표는 빌보드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특정한 나라나 커뮤니티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싸이의 성공으로 지드래곤·태양·빅뱅·투애니원 2NE1이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기 때문 2014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YG 소속 가수들의 선전을 예고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 '꽃보다 할배' 3탄 곧 만난다

### 이르면 이달말 촬영 돌입…여행지는 미정

tvN의 '배낭여행 프로젝트 꽃보다 할배' 3탄(이하 '꽃할배 3'-사진)이 방영 초읽기에 들어갔다.

'꽃할배 3'는 17일 화제 속에 종영한 '꽃보다 누나'(이하 '꽃누나')의 바통을 이어받아 3월초 방영된다. 방영에 앞서 나영석 PD, 이우정 작가를 비롯한 제작진은 유럽으로 떠나 현지 사전 답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진이 사전 답사를 마치면 출연진인 이순재·신구·박근형·백일섭과 짐꾼 이서진 등이 합류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꽃할배'는 방영 전부터 높은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앞서 1탄과 2탄이 '꽃할배' 신드롬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어서 방영된 '꽃누나' 역시 평균 9.0%(닐슨코리아 유료 플랫폼 가구 기준), 최고 10.6%로 방송 내내 높은 시청률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여행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2탄에서 유럽으로 떠났던 제작진은 답사에서 돌아온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꽃누나'의 마지막 회에서 '꽃할배 3'의 여행지에 대한 단서를 살짝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꽃누나'의 이승기는 '꽃할배 3' 촬영지를 알려주는 나영석 PD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러시아 아니냐? 이 나라에 이런 것도 있느냐"면서 "서진이 형이 못 버티고 국경 한번 넘으실 것 같다"고 말해 여행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다. /박정환기자 bakjh@

## 애니 '머털도사' 넌버벌 퍼포먼스 재탄생

### '위저드 머털' 개막…'점프' 배우들 10년만에 뭉쳐

인기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머털도사'를 넌버벌 퍼포먼스로 재탄생시킨 '위저드 머털'(사진)이 17일 대학로 AN아트홀에서 개막됐다.

이 공연은 1980~90년대 방영돼 인기를 모은 원작 애니메이션 '머털도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한국적 신선사상과 권선징악의 이야기는 유지하되, 주인공 머털도사의 캐릭터를 더욱 강화하고 애크러배틱과 무술, 마술, 코미디, 3D 영상을 가미해 다양한 볼거리와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어 냈다.

특히 마샬 아츠 퍼포먼스 '점프'의 화려한 무술과 코미디를 만든 배우들이 10년 만에 의기투합해 기획부터 2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만들었다.

제작사 측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에 보다 더 강력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든든한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 고유의 전통적 캐릭터와 태권도·어전의 한국의 무술·도술, 신선사상의 설화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공연화한 '위저드 머털'은 해외에서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02)2036-8182 /박준성기자

## 이민호 글로벌 투어 피날레…팬 5000명 환호

배우 이민호(사진)가 글로벌 투어 '마이 에브리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글로벌 투어의 앙코르 공연에는 이민호의 국내 팬뿐 아니라 일본·중국·태국·타이완 등 전 세계 팬 50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번 공연의 무대는 팬들과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다는 이민호의 요청에 따라 객석과 최대한 가깝게 꾸며졌다. 중앙에 360도 회전 무대가 등장했고, 동서남북 각 방향에 대형 스크린이 걸렸다.

무대에 오른 이민호는 주연을 맡았던 SBS '상속자들'의 영상을 배경으로 드라마 주제곡인 '아픈 사랑'을 부른 데 이어 자신의 애창곡인 가수 김범수의 '끝사랑'을 열창해 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상형을 찾아라'라는 코너에서 자신의 이상형으로 꼽힌 관객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기도 하고, 무대에서 드라마의 명대사 "나 너 좋아하냐"를 직접 선보이는 등 로맨틱한 모습으로 장내를 달아오르게 했다. 객석 통로를 빠른 걸음으로 내달리며 관객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앞서 이민호는 지난해 5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타이완·중국 등 6개국 8개 도시를 돌며 전 세계 팬들을 만났다. 앙코르 공연까지 성황리에 마친 그는 영화 '강남블루스'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 뻔하지않은 감동 황정민표 멜로물

**film review**

[illegible]

■남자가 사랑할 때

군산 뒷골목에서 일수꾼 노릇을 하는 한태일(황정민·사진 왼쪽)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전형적인 '양아치'다. 사채를 빌려 쓴 채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병수발하는 주호정(한혜진·오른쪽)은 아버지의 빚을 갚지 못해 결국 태일의 사람들에 의해 무시무시한 각서를 쓰게 된다.

이를 지켜본 태일은 호정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설픈 방법으로 호정에게 다가간다. 그러나 호정은 태일이 무섭고 탐탁지 않다. 심지어 태일의 수줍은 마음을 "지금 협박하는 거냐"며 밀어 낸다. 그러다 호정은 점점 마음을 열게 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남자가 사랑할 때'는 앞으로의 전개가 예상되는 전형적인 멜로 드라마다. 평생 사랑해본 적 없는 하류 인생 남자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불쌍한 여자. 불우한 인생을 사는 두 사람 앞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는 관객은 아무도 없다. 최루성 멜로 영화의 특징을 대부분 답습하고 있지만 너무 뻔한 영화가 되지 않기 위한 감독의 노력이 곳곳에 묻어난다.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클로즈업 샷이 자주 등장하다가도 빠른 줌샷으로 확 밀쳐 물러나 역으로 담담하게 그려낸다. 오해로 인해 이별한 태일과 호정이 재회하면서 격한 포옹신 대신 서로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눈물만 흘리는 장면은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든다.

또 곽도원과 박성웅 등 조연과 카메오의 맛깔나는 연기는 영화를 뻔한 신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하지만 중간중간 등장하는 코믹 요소는 감정선을 끊기게 만들며 영화의 흐름을 방해한다. '신세계' 조감독 출신인 한동욱 감독이 황정민과 박성웅을 다시 한 화면에 담아내 숨은 재미를 선사하지만 극 전반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

그럼에도 '남자가 사랑할 때'가 특별한 이유는 '너는 내 운명' 이후 오랜만에 황정민의 눈물 나는 멜로 연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내 운명'이 개봉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황정민은 순박한 농촌 총각과 정반대인 뒷골목 양아치를 연기하며 색다른 멜로 연기를 선보인다.

태일은 호정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서도 뒤에 욕설을 붙인다. 여자에게 욕을 내뱉어도 비호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태일이라는 캐릭터를 황정민이 무섭지만 귀여운 양아치로 그려냈기 때문이다. 순정마초로 변신한 황정민의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또 새롭다. 15세 관람가. 22일 개봉.

## '아메리칸 허슬' 美배우조합상도 받다

데이비드 O 러셀 감독의 영화 '아메리칸 허슬'이 제71회 골든글로브에 이어 제20회 미국배우조합상(SGA) 시상식에서도 상을 받았다.

크리스천 베일·에이미 애덤스·브래들리 쿠퍼·제레미 레너·제니퍼 로렌스 등이 출연한 이 영화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부문 최우수 캐스팅상을 차지했다.

'아메리칸 허슬'은 최근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코미디·뮤지컬 영화 부문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에이미 애덤스), 여우조연상(제니퍼 로렌스) 등 3개의 트로피를 차지한 바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제20회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캐스팅상을 수상한 영화 '아메리칸 허슬'의 감독과 출연진. /AP 연합뉴스

같은 부문 남녀주연상은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매슈 매코너헤이와 '블루 재스민'의 케이트 블란쳇에게 돌아갔다.

TV 부문 단체연기상은 '브레이킹 배드'(드라마 시리즈)·'모던 패밀리'(코미디 시리즈)가 받았다.

SGA는 미국배우조합이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영화와 TV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 내 모든 배우들이 자신과 같은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을 주는 행사다.

/[illegible] 기자

## '변호인' 개봉 33일만에 1000만

### '광해' 보다 5일 빨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변호인'(사진)이 결국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 NEW는 19일 "'변호인'이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근거로 오늘 오전 1시께 1027명을 보이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국 영화로는 9번째, 외화까지 포함하면 10번째 1000만 관객 영화다. 지금까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는 역대 흥행 1위인 외화 '아바타'(38일·1362만 명)를 비롯해 한국 영화인 '괴물'(21일·1301만 명), '도둑들'(22일·1298만 명), '7번방의 선물'(32일·1281만 명), '광해, 왕이 된 남자'(38일·1231만 명), '왕의 남자'(45일·1230만 명), '태극기 휘날리며'(39일·1174만 명), '해운대'(33일·1145만 명), '실미도'(58일·1108만)가 있다.

'변호인'의 1000만 명 돌파는 '괴물', '도둑들', '7번방의 선물'보다는 느리지만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는 5일 빠른 기록이다.

이로써 순제작비 42억원에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총 제작비 75억원이 투입된 이 영화는 제작비 대비 10배에 가까운 약 728억원을 벌었다.

또 한국 영화계는 2012년 '도둑들'과 '광해, 왕이 된 남자', 지난해 '7번방의 선물'에 이어 3년 연속 1000만 관객 영화를 낳았다. 이와 함께 '7번방의 선물'과 이번 작품으로 2년 연속 1000만 관객 영화를 배출한 NEW, 데뷔작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양우석 감독, 두 편의 1000만 관객 영화 주인공이 된 송강호 등 여러 기록도 함께 세웠다.

한편 공유 주연의 액션 영화 '용의자'는 개봉 27일 만인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400만9596명을 동원하며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도가니'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공유가 펼치는 강도 높은 리얼 액션이 호평을 받으며 꾸준히 관객을 동원했다.

/[illegible] 기자

##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10만 돌파 눈앞

일본 영화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사진)가 1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뒀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개봉된 이 영화는 18일 2079명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은 9만2302명이다.

앞서 17일에는 개봉 30일 만에 9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소규모 개봉한 예술영화 중 최고 흥행을 기록한 '마지막 4중주'(10만8007명의 관객 동원)가 9만 명을 넘긴 시점보다 무려 11일 빠르다.

영화는 병원에서 자식이 뒤바뀐 이야기를 토대로 했다. 신파적인 줄거리 속에서도 고레에다 감독이 실제로 자신의 삶을 보며 느낀 고민과 생각들을 담담하게 담아내 지난해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illegible] 기자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제공 - 보누스

# 부모님 얘기 좀 그만해

박경선의 모놀로그

이러 강연회에서 만나본 이십대들에게서 내가 참 자주 놀랐던 것은 그들의 부모에 대한 복잡한 마음 이었다. 고민 상담이라면 보통은 연애나 일 등 자신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보통인데 대신 부모와의 관계, 가령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두려움, 원망, 애정결핍과 자존감 부족을 거론했다. 충족되지 못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려고도 전전긍긍했다. 이런 컸으니 나를 억압했던 부모들 향해 분노하고 싶은 마음과, 나를 사랑해 달라고 애원하고픈 심정이 교차한다. 이래저래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못 벗어나고 있다.

자식은 궁극적으로 자기 부모라는 껍질을 깨야 어른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저항과 극복의 경험은 없고 대신 아직도 응크린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바란다. 부모도 이미 훌쩍 다 큰 자식 인생에 여전히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려 한다. 서로가 서로를 보내주지 못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의존하며 공생한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그 자식이 부모가 되어 같은 일이 세대 넘어 되풀이된다.

부모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깔끔하게 체념해야 한다. 그 나이에 갑자기 자식 입맛대로 부모가 변해주지도 않는다. 가족운이 없다고 자조하고 벌제버리자. 심리적·경제적 자립으로 부모와 물리적 거리를 두고, 그들로부터 못 받은 것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과의 좋은 관계로 얻는 게 낫다. 최선이 없었다면 내 노력으로 차선을 가지는 것이다. 거리를 두라는 말은 버리라는 게 아니다. 가까이에서 완벽한 부모-자식 관계를 서로에게 주입하며 집착하지 말고 거리 두고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상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해주어야 용서와 극복이 뒤따른다. 그게 싫다면 내가 일부러 나서서 부모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쉽게 해결 안 될 문제는 일단 옆으로 잠시 치워놓고 인생 진도를 먼저 나가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놔버려야 비로소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법이다. /칼럼니스트

#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 이혼한 지 3년 재혼운 있을까
## 내년 운기 좌장해 뱀띠와 연분

bynin 남자 61년 5월 27일 음력

**Q** 이혼 후 혼자 산 지 3년 됐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재혼의 자리가 다가는 왔지만 마음에 찬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나 돈이 되지 않습니다. 직 없는 여자를 고생시킬까봐 재혼이 꺼려졌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네요. 배우자 인연이 있는지요?

**A** 초목이 물을 만난 격으로 운기가 좌장합니다. 흡관에 물이 잘 자리고 있으니 식신생재(食神生財)하여 2015년이 지나면서 뒤늦게 이식이 뭉쳐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분야에서 고심히 하여 돈을 벌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을 것입니다. 재주가 많은 것이 오히려 뒤처지는 인생이 되었고 생업이 도화(桃花)는 본처와 해로하기가 어려워 이성 문제는 평생 골칫거리였다다. 생공지에 귀인과 장색궁을 놓고 있으니 공망(빌 공, 망할 망)이 없으니 재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보는 눈높이를 낮추고 노년을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2015년 결혼운이 있으니 뱀띠와 연분이 있습니다.

## 결혼할 생각없이 낭비하는 딸
## 2년 더 기다리고 올 여름 조심

백두산산 여자 88년 9월 23일 음력 밤 12시

**Q** 제 딸이 애인도 없고 결혼 준비도 안 하고 회사에서 받는 봉급은 그 달에 다 써버리는 형편입니다. 도무지 생각이 없고 천방지축입니다. 제 큰가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주팔자에 결혼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딸에게 언제쯤 결혼할 마음이 생길까요.

**A** 디자무지(多財無財)라서 남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결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화화(날카로운 기위로 꽃을 잘라버림)의 모습으로 좌충인식의 심경이 되기 쉽고 남자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해 물건 사 쓰는 것에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향 감시도 제가 싶으면 못 하는 것 이므로 앞에서 이루라 야마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2016년이 되면 마음이 드는 신뢰감이 다가오게 되므로 그때까지는 돈을 모으지 않고 낭비하여도 방법이 없습니다. 7~8월 칠살도화(七殺桃花)가 준동하여 로색하는 남자를 만나 회사에 손재수를 당하기도 하다. 지금부터 회근 후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계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 신점[神占] 운세 1월 20일 (음 12월 20일) 김덕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미우나 고우나 역시 배우자가 최고. 60년생 염려 지나치면 진전 못 한다. 72년생 여유 생겼을 때 적극 벽을 어라. 84년생 기록에 남길 만한 경사 생긴다.

소: 49년생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좋다. 61년생 존재감 우여쌓는 데 신경 써라. 73년생 몰래 한 착한 일은 언젠가 드러난다. 85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상쾌하다.

호랑이: 50년생 대접받으려면 목소리 낮춰라. 62년생 너무 신중하면 기회 놓친다. 74년생 운세 흐름 좋으니 포부를 크게 하라. 86년생 상사에게 원하던 대답 듣는다.

토끼: 51년생 배우자와 화목하니 따뜻하다. 63년생 문서 일은 실수 조심할 것. 75년생 잘 풀린 일은 큰 기쁨 선물한다. 87년생 사랑스러운 인연 때문에 행복한 하루.

용: 52년생 귀중품은 아이 돌보듯 소중히 할 것. 64년생 지나친 고집은 손해 부른다. 76년생 아랫사람 얘기라 해서 무시하지 마라. 88년생 귀인을 만나 좋은 야심을 키운다.

뱀: 53년생 혼자 있으면 공허하면 찾아온다. 65년생 사람 소개하는 일은 자제하라. 77년생 믿기 힘든 작은 기적이 일어난다. 89년생 칭찬 받더라도 겸손하라.

말: 42년생 자식에게 이기려는 무리수는 금물. 54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66년생 결과가 허술하더라도 다음을 기약하라. 78년생 베풀면 두 배로 돌려받는다.

양: 43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바쁘다. 55년생 친구 위한 일이면 마음껏 나서보자. 67년생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79년생 공들인 끝에 무산되어 허탈.

원숭이: 44년생 집안에 도움이 되는 일 생각할 것. 56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68년생 술자리를 한 판전이 약이다. 80년생 정감 나눌 벗이 있으니 좋구나.

닭: 45년생 베풀면 복이 채워진다. 57년생 다투어 과열이 주먹주먹 일린 격이다. 69년생 귀가 얇으면 다음에 땅을 친다. 81년생 기회가 왔을 때 존재감을 보여줘라.

개: 46년생 이웃의 어려움을 고초 살피라. 58년생 흔쾌히 하면 욕이 따른다. 70년생 갑자기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은 멀리하라. 82년생 기다림의 결과는 달콤하다.

돼지: 47년생 자녀가 기쁜 소식 전한다. 59년생 좋은 일 하고도 욕에 티 만들지 마라. 71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과 좋다. 83년생 변수 많으니 끝까지 조심하라.

# 구자철 "맨유 박지성처럼"

## 이적료 72억원에 마인츠행···등번호 13번 받아

독일 프로축구 볼프스부르크에서 뛰던 구자철(25)이 마인츠로 이적했다.

마인츠는 18일 홈페이지에 구자철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이 2018년까지라는 것 외에는 계약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적료는 400만 유로(약 72억18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마인츠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인 300만 유로를 훌쩍 뛰어넘는다.

크리스티안 하이델 마인츠 단장은 "구자철은 우리가 오랫동안 눈여겨본 선수다. 공격진을 강화할 이상적인 대안이다. 긴장기개 영입에 공을 들였으며 마침내 데려올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마인츠는 구자철이 아끼는 등번호인 13번을 배정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구자철은 대표팀에서 출동할 때 이 번호를 선호했다. 2011년 아시안컵,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에 나설 때 13번을 달았다.

등번호 13번 유니폼을 입게 된 구자철 /마인츠 공식 홈페이지

13번은 박지성(33·에인트호번)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을 때 달았던 번호다. 박지성이 맨유 시절에 펼친 인상적인 활약 때문에 한국 선수 중에는 13번에 의미를 두는 이들이 종종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인 대표팀 공격수 김보경(25·카디프시티)도 13번을 달고 뛰고 있다.

한편 2011년 볼프스부르크에 입단하며 분데스리가에 데뷔한 구자철은 이듬해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됐다. 올 시즌을 앞두고 볼프스부르크로 돌아왔지만 지난해 10월 부상을 당했다가 복귀한 이후 팀 내 입지가 좁아졌다. 현재 마인츠에는 국가대표 수비수 박주호(27)가 뛰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8일 오전(현지시간) 전지훈련지인 브라질 포스 두이구아수시의 아베시 경기장에서 제자리뛰기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 홍명보호 '플랜B'는 지동원?

## 원톱 부족 타개책 언급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원톱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언급했다.

홍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 중인 18일 오전(현지시간) 브라질 포스 두이구아수시의 아베시(ABC) 경기장에서 훈련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원톱이 부족하다면 이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의 이 같은 발언은 박주영이 잉글랜드 아스널에서 벤치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신욱(울산)과 이근호(상주)마저 추후 지금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홍 감독은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로 복귀하며 잉글랜드 선덜랜드에서의 부진을 만회할 기회를 잡은 지동원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나 "지동원이 새 팀에서 과연 얼마나 활약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진환기자

# 임창용 "승환아 라이벌 이길 비책은···"

오승환(32·한신 타이거스·사진)이 선배 임창용(38)에게 라이벌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타도할 비책을 전수받는다.

일본 스포츠호치는 19일 "오승환이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수호신이었던 임창용으로부터 라이벌 구단을 막을 방법과 이국 땅에서 성공할 비결을 배웠다"고 보도했다. 두 선수는 같은 에이전트를 두고 있으며 현재 괌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다.

임창용은 2008년 일본에 건너가 야쿠르트에서 통산 128세이브, 평균자책점 2.09로 성공을 거뒀다. 요미우리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올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베 신노스케, 조노 히사요시, 다카하시 요시노부 등 간판 타자들에게 강한 면모를 보였다.

임창용은 "아베라고 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말고 상대팀을 억제한다는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며 "일본에서 중요한 것은 팀 동료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식사에 초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조언했다.

/유순호기자

마이클 "내가 스파이크 서브킹" 1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3~2014 V 리그 올스타전 스파이크 서브 콘테스트에서 'V 스타'의 마이클 산체스(대한항공)가 강 서브를 날리고 있다. /뉴시스

# 재주 넘고···춤추고···독특한 세리머니

## V-리그 올스타전 MVP에 여오현·에드가·데라크루즈

프로배구 V리그가 팬들과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진 10주년 축제를 흥겹게 마쳤다.

NH농협 2013~2014 V-리그 올스타전이 19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5600여 배구 팬들이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올스타전에서는 'K 스타' (남자부 삼성화재·현대캐피탈·LIG손해보험, 여자부 IBK기업은행·흥국생명·현대건설)과 'V 스타' (남자부 우리카드·대한항공·한국전력·러시앤캐시, 여자부 GS칼텍스·KGC인삼공사·도로공사)의 열띤 승부가 벌어졌다.

양팀 선수들은 득점을 올릴 때마다 독특한 세리머니를 펼치거나 춤을 추는 등 실제 경기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을 연출해 팬들을 즐겁게 했다.

경기는 K 스타팀이 V 스타팀을 58-51(15-12 13-15 15-13 15-11)로 이겼다.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는 MVP는 남자부 여오현(현대캐피탈)과 토머스 에드가(LIG손해보험)에게, 여자부 베티 데라크루즈(도미니카공화국)에게 돌아갔다.

스파이크 서브킹 서브퀸 자리에는 마이클 산체스(대한항공)와 카리나 오카시오(IBK기업은행)가 각각 올랐다.

/박진환기자 jak2427@

MVP를 수상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여오현, 토머스 에드가, 베티 데라크루즈(왼쪽부터) /뉴시스

| 프로농구 전적 | | | | | 19일 |
|---|---|---|---|---|---|
| KT | 17 | 21 | 22 | 13 | 73 |
| 인삼공사 | 18 | 10 | 16 | 15 | 65 |
| 오리온스 | 18 | 15 | 26 | 16 | 76 |
| 동부 | 14 | 20 | 14 | 21 | 69 |
| SK | 13 | 18 | 18 | 21 | 82 |
| KCC | 16 | 9 | 23 | 22 | 74 |
| 하나외환 | 15 | 5 | 16 | 21 | 61 |
| 삼성생명 | 22 | 27 | 5 | 14 | 66 |

## 안현수 유럽선수권 500m 금

러시아 국적으로 새 출발한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2014 유럽 쇼트트랙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현수는 19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남자 500m 결승에서 40초644로 결승선을 통과해 너트 싱키에(네덜란드·40초734)를 제치고 우승했다. 안현수는 이날 우승으로 포인트 34점을 획득하며 세멘 엘리스트라토프(러시아·34점)와 함께 종합 선두를 달렸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인 안현수는 부상, 빙상연맹과의 갈등, 소속팀 해체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다 2011년 러시아 국적을 얻었다. 다음달 열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명예 회복을 벼르고 있다.

/유순호기자

**윌리엄스 16강 탈락 '이변'**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세레나 윌리엄스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16강에서 짐을 쌌다. 윌리엄스는 19일 호주 멜버른 파크 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7일째 여자단식 16강에서 아나 이바노비치(14위·세르비아)에게 1-2(6-4 3-6 3-6)로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이어오던 윌리엄스의 25연승 행진은 중단됐다. /AP 연합뉴스